

김광현, 6이닝 무실점 쾌투...후반기 첫 등판서 시즌 5승

샌프란시스코전 승리...평균자책점 2.87 ↓

아내·아이들 등 가족, 부시스타디움 첫 방문

김광현(33·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후반기 시작을 승리로 열었다.

김광현은 18일(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6이닝을 3피안타 2볼넷 1탈삼진 무실점으로 막고 시즌 5승(5패)째를 따냈다.

투구 수는 85개. 38개의 직구와 32개의 슬라이더로 샌프란시스코를 상대했다. 체인지업과 커브는 각각 11개, 4개를 섞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11에서 2.87로 낮아졌다.

이날 부시스타디움엔 김광현의 아내와 아이들이 방문했다. 김광현이 지난해 빅리그에 진출한 뒤 가족들이 경기장을 찾은 건 처음이다. 가족이 지켜보는 앞에서 김광현은 더욱 힘을 내며 눈부신 피칭을 선보였다.

3-0으로 앞선 7회 교체된 김광현은 세인트루이스가 3-1로 이기면서 승리 투수로 이름을 올렸다. 지난 1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전부터 4경기 연속 승리 행진이다.

김광현은 1회 첫 타자 오스틴 슬레이더와 도노번 솔리노를 연거푸 유격수 땅볼로 돌려세웠다. 2사 후 마이크 야스트렘스키에게 볼넷을 내줬지만, 다린 러프를 우익수 뜬공으로 잡아내고 이닝을 마무리했다.

2회와 3회는 삼자범퇴로 정리했다.

2회 윌머 플로레스와 풀카운트 승부 끝에 7구째 슬라이더로 유격수 땅볼을 끌어냈고, 후속 커트 카살리라도 풀카운트 승부를 벌여 슬라이더로 3루수 땅볼을 유도했다. 스티븐 더거는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했다.

3회는 공 8개로 끝났다. 사이로 에스트라다를 4구째 직구로 유격수 땅볼로 잡아낸 김광현은 앤소니 데스크라파니와 오스틴 슬레이더를 모두 뜬공으로 묶어냈다.

첫 피안타는 4회 나왔다. 선두타자 솔리노에게 1볼-1스트라이크에서 던진 3구째 직구가 우전 안타로 연결됐다.

그러나 무사 1루에 놓인 김광현은 후속 야스트렘스키에게 땅볼을 유도, 선행 주자를 잡아냈다. 이어진 1사 1

루에선 러프에게 유격수 더블플레이를 이끌어내 무실점 행진을 이어갔다.

가장 큰 위기는 5회였다. 선두 플로레스에게 좌전 안타를 맞은 김광현은 카살리와 더거를 연달아 중견수 뜬공으로 돌려세웠다. 그러나 그 사이 폭투로 플로레스를 2루로 보냈다.

2사 2루에 놓인 김광현은 에스트라다를 고의4구로 내보내고 데스크라파니와 승부를 택했다. 선택은 적중했다. 김광현은 2사 1, 2루에서 데스크라파니를 낮게 떨어진 슬라이더로 삼진으로 요리했다. 이날 김광현의 유일한 삼진이다.

무실점 피칭은 계속됐다. 6회 1사 후 솔리노에게 좌중간 안타를 허용한 김광현은 야스트렘스키를 2루수 뜬공, 플로레스를 중견수 플라이로 돌려세웠다.

김광현의 역투에 세인트루이스 타선도 응답했다. 세인트루이스는 2회 말 타일러 오닐의 우월 솔로포로 선제점을 냈다.

1-0으로 아슬아슬한 리드를 이어가던 6회말에는 폴 골드슈미트의 우중월 2점홈런이 터지면서 3-0으로 점수차를 벌렸다.

타석에서는 2타수 무안타를 기록한 김광현은 7회 라인 헬슬리에게 마운드를 넘겼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김광현이 17일(현지시간) 미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부시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해 1회 투구하고 있다.

헬슬리는 등판하자마자 볼넷과 안타를 내주며 흔들려 1실점했지만, 세인트루이스는 더 이상의 추격은 허용

하지 않았다. 3-1로 앞선 9회초 마무리 투수 알렉스 레예스는 안타와 볼넷으로 몰린

무사 1, 2루 위기를 무실점으로 넘기고 그대로 경기를 끝내 김광현의 승리를 지켜냈다. 뉴스

장흥군청 육상팀, 전국대회 2위 입상 쾌거

지난해 12월 창단 후 최고 성적

장흥군 육상팀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강원도에서 개최된 '2021 고성통일 전국실업육상경기대회' 경보 10km에 출전한 김나현 선수가 2위를 차지하여 팀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을 거두었다고 전했다.

장흥군의 첫 직장운동경기부인 육상팀은 스포츠 메카로의 장흥군 이미지 제고와 엘리트 스포츠 육성을 목적

으로 2020년 5월 문준흠 감독을 중심으로 원반 던지기, 경보, 장거리 선수 등 5명으로 구성 후 2020년 12월 21일 창단된 새내기 팀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동안 '2020 예천 전국대학·일반육상경기대회' 이훈(남자 원반 던지기) 3위, 김낙현(남자 경보 20km) 3위, '2021년 제50회 전국중별육상선수권대회' 권수아(여자 원반 던지기) 3위, 김낙현(남자 경보 10km) 3위를 차지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두



고 있다. 장흥=김도영 기자

레슬링 류한수, 한국 4번째 그랜드슬램 도전

크레코로만형 67kg급 간판 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 등 우승 불구 올림픽 입상은無

위기의 한국 레슬링이 도쿄올림픽에서 반전을 꿈꾼다. 주인공은 그레코로만형 67kg급 간판 류한수(33·삼성생명)다.

한국은 이번 도쿄올림픽 레슬링 종목에서 출전권을 단 2장밖에 획득하지 못했다.

악재가 겹쳤다. 최근 수년간 선수 수급 문제로 기량이 하락했고, 도쿄올림픽 본선 준비 과정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선수단이 축소됐다.

류한수는 추락하는 한국 레슬링의 마지막 희망이다.

2012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동갑내기 친구인 김현우(삼성생명)와 함께 한국 레슬링의 쌍두마차 역할을 해왔다.

올림픽 입상은 없지만, 세계선수권대회에서 2차례(2013, 2017년) 우승했고, 아시안게임(2014, 2018년)과 아시안선수권(2015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도쿄올림픽은 류한수에게 마지막 남은 과제다.

2016 리우올림픽에서 금메달 후보로 꼽혔지만, 8강에서 아쉽게 저타락했던 아픈 기억이 있다.



◇류한수 프로필

▲생년월일 : 1988년 2월1일 ▲신장 : 168cm ▲몸무게 : 67kg ▲학력 : 경북공업고-경성대 ▲소속팀 : 삼성생명 레슬링단 ▲주요이력 : 2014 인천아시안게임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금메달, 2017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그레코로만형 66kg급 금메달,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 남자 그레코로만형 67kg급 금메달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박장순, 심권호, 김현우에 이어 한국 레슬링 사상 4번째로 그랜드슬램(올림픽-세계선수권-아시안게임-아시안선수권 우승)을 달성한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독일 국가대표 프랭크 스태블러를 비롯해 이스마엘 보레로 몰리나(쿠바), 아르템 수르코프(러시아) 등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쳐야 한다.

이중 세계선수권대회만 3차례 우승한 스태블러는 이 체급 최강자로 꼽힌다.

류한수는 지난 2015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선수권대회 결승에서 스태블러와 맞붙은 적이 있는데, 당시 1-5로 완패했다.

우여곡절 끝에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딴 류한수가 역대 최악의 위기를 겪는 한국 레슬링의 영웅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베이징 떠올린 강민호 “이번엔 무탈하게 금메달을”

13년 만에 두 번째 올림픽

13년 전 뜨거운 그날을 기억하는 강민호(36·삼성 라이온즈)가 다시 한번 그 영광에 도전한다.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야구대표팀 훈련에 앞서 만난 강민호는 “오랜만에 대표팀에 뽑혔는데 기분 좋다. 책임감도 있지만, 어린 선수들과 좋은 경기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민호에겐 두 번째 올림픽이다. 그는 2008 베이징 올림픽에서 '9전전승의 신화'에 힘을 보태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당시 만 23세의 나이로 막내급 백업 포수 역할을 맡았던 강민호는 대회 중 진감용이 햄스트링을 다치면서 역할이 커졌다.

쿠바와 결승전에서 선발 포수로 나선 그는 심판의 석연찮은 판정 속에 퇴장당한 뒤 화를 참지 못하고 미트를 내동댕이치는 장면으로 깊은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당시 정태현의 병살타 유도도 한국의 금메달이 확정되자 강민호는 마운드로 달려와 기쁨의 눈물을 쏟아냈다.

베이징 대회 때의 '결승전 명장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강민호는 머쓱해하며 “그런 명장면은 이번엔 안 나왔으면 좋겠다. 무탈하게 목표를 하는 금메달을 따고 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어느덧 그는 프로 18년 차 베테랑이었다. 투수 오승환(39·삼성)이 대체 선수로 막판 합류하기 전까지 팀의 최선입이었다.

“베이징 때는 소집됐을 때 마상 신



이났다. 대표팀에 뽑힌 거 자체가 신기했다”고 떠올린 그는 “이제는 선입이니 팀 분위기를 어떻게 잡아갈까 할지 생각하게 된다. 어색한 분위기를 편하게, 우리 팀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표팀은 마운드로서 새 얼굴이 대거 합류했다. 국제 무대가 낯선 투수들에게 경험 많은 강민호가 힘이 돼줘야 한다.

강민호는 “어린 선수들과 할 수 있다는 게 감회가 새롭다. 이의리(KIA 타이거즈)와는 17살 차이가 난다”며 웃은 뒤 “나도 돌아보니 베이징 때 23살이었더라. 지금 보니 그 나이에 어떻게 경기를 뛰었나 싶었다. 어린 친구들이 패기있게, 무거운 것 없이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집 첫 날인 17일 강민호는 이의리, 고영표(KT 위즈)의 공을 받으며 호흡

을 점검했다.

“좋은 공을 던지더라. 고영표가 체인지업을 던지며 구중 확인을 했는데, 내가 고영표 공을 못 친 이유가 있었구나”란 생각이 들 만큼 좋은 공을 던졌다”고 차치세운 그는 “이의리가 어리지만 직구가 힘이 있었다. 신인인데 뽑힌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연신 젊은 투수들에 힘을 실어줬다.

국제대회에서는 심판에 따른 변수도 크다. 13년 전 결전의 순간 퇴장을 당했던 그는 누구보다 이를 잘 안다.

강민호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는 아마추어 쪽 심판이 많이 배치되는 거 같다. 포수로 앉아 1, 2회가 지나고 나면(심판이) 어떤 스트라이크존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게 된다”면서 “이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 같다. 한국은 양 사이드가 넓다면, 국제 경기에선 위아래가 넓을 수 있다. 심판 성향을 빨리 캐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경문 감독 “도쿄올림픽 마무리 투수? 오승환!”

KBO리그 최고의 마무리 투수들이 모인 야구대표팀에서도 '골판대장'은 오승환(삼성)이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야구대표팀을 지휘하는 김경문 감독은 18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훈련에 앞서 “오승환을 마무리 투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표팀은 리그를 대표하는 마무리 투수 3명이 승선했다. LG 트윈스 고우석과 키움 히어로즈 조상우에 이어 대체 선수로 오승환까지 가세했다.

내로라하는 투수들이 모인 만큼, 대표팀의 마무리 투수는 누가 맡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김 감독의 선택은 오승환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까지 두루 거처며 많은 경험을 쌓은 오승환은 올해 27세이브로 구원 단독 1위를 질주하고 있다.

김 감독은 “조상우나 고우석은 팀이나 타순에 맞게 낼 수 있다. 앞에서 미리 당겨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17일) 소집, 훈련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김 감독은 “선수들이 준비를 잘해왔다는 느낌을 받았다. 선수들이 서로 잘 알지만, 아무래도 어색한 분위기도 있는데 앞으로 훈련할수록 좋은 분위기로 바뀔 거라고 본

다”며 미소지었다.

단기전에서 초반 분위기에 따라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1, 2차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29일 이스라엘과 예선라운드 첫 경기를 갖고, 31일 미국과 맞붙는다.

“1,2차전을 무조건 이겨야 된다. 선발 투수는 아직 말할 수 없다. 1, 2차전을 잘 풀면 선수들도 그만큼 부담이 없어질 거고, 나도 여유를 가질 것 같다”고 강조한 김 감독은 “조만간 1, 2차전 선발 투수는 준비를 할 수 있게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